

■ 윤범모 교수의 '평양 국보전' 을 보고



왼쪽부터 평양 진파리 7호 무덤에서 나온 금동 맛푹을 장식, 신계사 향원, 태조 왕건상.



‘금동 맛푹음 장식’ 걸작 중 걸작

실물크기 ‘고려 태조상’ 하이라이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평양국보전' 에서 조선시대 금동보살상을 살펴보는 관람객. 사진=고영배 기자

서울에서 평양의 국보들을 본다. 이는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실로 경이할 일이 아닌가. 남북 교류의 본격적 서막은 바로 국보의 교환전시에서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냉전시대를 마감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은 바로 미술품 교환전시였다. 이번 평양에서 온 진귀한 문화유산은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임을 한눈에 알려준다.

특히 실체를 확실히 알 수 없었던 북녘의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을 한자리에서 음미할 수 있는 이번 평양 방문이 이들 박물관에서 상당수는 이미 감상한 작품들이나, 또 상당수는 처음 보는 작품이기도 하다. 어쨌든 감회가 깊다. 서울에서 평양의 국보들을 보자!

전시의 명칭은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국립중앙박물관, 8월 16일까지)이다. 전시는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평양 검은 모루 유물부터 고조선시대의 토기, 칼, 거울, 구슬 등으로 이어진다. 고구려와 발해의 미술품은 우리 민족의 기상을 힘껏 자랑한다.

평양 진파리 7호 무덤에서 수습된 '금동맛푹음 장식'(5~6세기)은 걸작 중의 걸작이다. 고구려의 대표적 금속공예품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미술품은 짜임새 있는 디자인 감각과 세련된

금속 주물기술로 우리를 감탄하게 한다. 중앙의 삼족오(三足烏)를 비롯 용과 봉황의 역동적인 자세는 너무나 아름답다.

'영강(永康) 7년명 금동 광배'(551년)는 비록 불신(佛身)을 잃었지만 불꽃과 연꽃무늬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특히 광배 뒷면의 명문은 제작 연대와 본존상이 미루상임을 알게 한다.

고려시대의 미술품은 각별하다. 하기가 세계적 명성의 고려불화, 고려청자의 시대가 아니었던가. 이번 출품작 가운데도 뛰어난 작품이 여러 점 있었는데, 예컨대 정교한 은입사 기법의 문양이 새겨진 '신계사 향원'(1352년), 쇠북(靑銅金鼓), 화로, 범종, 지팡이 장식, 금동소탑, 사리함 같은 공예품을 들 수 있다.

특히 불상에서 '개성 관음사 관음보살'은 특이하게도 대리석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살의 전신에 화려한 장식을 이루어 관음의 자비심과 아름다움을 듬뿍 자아냈다.

그의 '금동구면(九面)관음보살'은 11면관음과 연계된 특이한 작품이다. 2종류의 '금동아미타삼존불'이라든가 '금동보살상' 등 평양소장의 불상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고려 태조상'이다. 1992년 개성의 왕건릉 개건공사 당시 발굴된 작품이다. 처음에는 청동불상으로 오인했지만 이내 왕건 태조의 동상으로 수정되었다. 실물대 크기의 이 동상은 나신(裸身)이지만 원래 비단옷을 입었으며 실제로 묘사로 회귀한 작품이다. 통천관(通天冠)을 쓰는 등 왕권을 황제로 추앙한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지 않을 수 없다. 고려의 불상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작품으로 고려인의 추앙을 받다가 조선 세종시대에 매장되었다 근래 햇빛을 본 작품이다.

■ 경원대 · 미술평론가



국보 보물 60점 한눈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독특한 '청동소탑', 한질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백지목서묘법연화경>(국보 제211호), 현존 사경 가운데 가장 화려한 <감지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보물 제752호),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진수로 평가받는 '금동대세지보살좌상(보물 제1047호)' 등 평소 접할 기회가 없었던 문화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호림박물관 소장 국보展

'현재의 국보, 미래의 국보'

6월 23일~8월 31일

6월 23일~8월 31일 서울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에서 열리는 '호림박물관 소장 국보展'에는 <초조본아비달마십신족론>권11·17(국보 제268호) 등 국보 8

건 16점, 지정시왕도(보물 제1048호) 등 보물 44건 49점, 청자상감국화문표형병(서울시유형문화재 제194호) 등 서울시유형문화재 6건 6점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특별전의 주제는 '현재의 국보' '미래의 국보'. '현재의 국보'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65점의 유물을, '미래의 국보'에는 지정 가치가 높은 비지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60여 점의 유물을 소개한다.

호림박물관은 전시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에 학예연구원이 전시 유물을 설명하는 특별전 설명회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권34(보물 제752호).



백자청화매죽문호(국보 제222호).



금동대세지보살좌상(보물 제1047호).

고려시대 청동소탑, 구성 독특

금동대세지보살좌상, 장식 화려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명품은 무엇일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동소탑(靑銅小塔)'이 처음 그 자태를 드러낸다. 파손된 부분이 거의 없이 보관된 청동소탑은 탑의 각 부분이 정교하게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탑 앞에 탑과 불상이 배열됐고 탑신에도 공양상이 서 있는 등 구조의 특별함을 자랑한다. 이 같은 구성은 현존하는 다른 소탑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이다.

사리가 매우 드문 조선 후기 사경 <감지금니대묘법연화경>권1~7의 완질이 첫 선을 보인다. 이 사경작품은 1764년 당시 유명한 화승(僧僧) 신경의 작품이다.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첫 선을 보이는 이들 '명품' 외에도 원삼국시대 토기에 서부터 청자 분청사기 등 도자기, 지정시왕도 등 불교미술품, 초조대장경 등 전작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재들이 자리한다.

- 전시되는 국보들
- 국보 제179호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
- 국보 제211호 <백지목서묘법연화경>권1~7
- 국보 제222호 백자청화매죽문호
- 국보 제266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75
- 국보 제267호 <초조본아비달마십신족론>권12
- 국보 제268호 <초조본아비달마십신족론>권11·17
- 국보 제269호 <초조본불설최상근본대각금강불공심매대교왕경>권6
- 국보 제281호 백자주자



<초조본아비달마십신족론> 권21(국보 제267호).

'금동대세지보살좌상(보물 제1047호)'은 전시 불상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다. 금동대세지보살좌상은 적당한 비례와 단아한 몸매,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진수로 평가되고 있다.

<백지목서묘법연화경> 권1~7은 한 질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보기 드문 고려시대 사경작품이다.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권34는 현존 사경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 200여 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초조대장경> 가운데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권2·75(국보 제266호), <초조본아비달마십신족론>권12(국보 제267호) 등이 공개된다.

<초조대장경>은 12세기 고려 인쇄문화의 수준과 불교계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산미가 일품인 '청자상감국화문표형각장경병(보물 제1454호)', 철화청자(鐵畫靑磁)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청자철제박지연어문편병(국보 제179호)', '분청사기철화당초문장군(보물 제1062호)', 조선시대 청화백자 가운데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백자청화매죽문호(국보 제222호)' 등도 주목받는 '명품'들이다. (02)858-2500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이번에 처음 공개된 '미래의 국보' 청동소탑(고려시대).

조계종 균중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포교교 힘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별도의 설명서 영프로그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익산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야외행사 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100W+100W . 소비전력: 350W  
 • 입력전압: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 포함  
 • 모니터 21인치(원천 평면) 마이론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 (직), 2004-8219 (현대불교 영업팀)